



침묵
엔도 슈사쿠
공문혜 옮김 / 홍성사

믿음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이 질문은 믿음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다. 남들이 설득해서 억지로 생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억누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물론 믿음이란 자연스럽게 안에서 솟아나야 한다. 남들이 아무리 “채는 신앙이 없는 애야.”라고 떠들고 다녀도 자기만 신실하면 그만이다. 남들의 왈가왈부엔 신경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래도 타자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남들의 수다에 상처를 받고, 혼자 뿌듯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엔도 슈사쿠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믿음은 과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오로지 주님을 향한 것인가?”

배교의 이유

처음 책을 열면 일본으로 간 포르투갈 가톨릭 선교사들이 등장한다. 아무리 모진 학대가 들어와도 이들은 절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들은 충분히 자신이 있었다. 먼저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학대를 못 이겨 배교(背敎)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선배 선교사들에 대한 경멸마저 있었을지 모르겠다.

당시 일본은 가톨릭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일본정세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인들이 서양문물에 가졌던 두려움은 상당했던 것 같다. 실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다. 가톨릭을 체제와 전통을 부정하는 종교로 보고 얼마나 모진 박해를 했었나.

다시 돌아가, 순교할 각오를 한 선교사들이 험난한 경로로 일본에 가는데 성공한다. 일본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가톨릭을 절실하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쉬쉬하는 상황이다. 선교사들은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선교를 해 나가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먼저 배교한 선배 선교사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안위 때문에 종교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교활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일본인 지도자의 술수가 워낙 대단했던 탓이다.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들을 죽이겠어!”

자신을 보살피오던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고문하면서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지도자의 협박이 선교사들을 괴롭힌 것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심이 깊은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선교사에게 절규한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을 마냥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선교사들은 근원적 모순에 빠진다. 결국, 주인공은 피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

신앙에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가?

이들은 결국 고향의 친구들로부터 ‘배교자’라는 딱지를 얻는다. 그러나 막상 이들은 오히려 담담하다.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속마음이라.

<침묵>의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꼭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암시하지만) 아마도 뻔하다. 주님 앞에 당당히 혼자 독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꼭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견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믿음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를 머리로만 알 뿐, 심장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교회건물은 늘어나고, 신앙인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도는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줄 메시지

신부는 발을 들었다. 발이 저린 듯 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 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p.267